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5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8.21~2025.08.26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기초자치단체, 국정과제, 북극항로, 청년, 감귤
경제·관광	감귤, 홍보, 크루즈, 관광객, 농가
지역·사회	차량, 예방, 해상, 불법, 구조

※ 분석 기간 : 25.08.21.~25.08.26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둘러싼 갈등 - 국정과제 채택과 정부의 역할 - 출범 대비 실무 준비 착수
	국정과제	- 제주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 국비 확보 위한 당정협의 - 국정과제 연계 후속 조치 본격화
	북극항로	- 북극항로 시대, 제주의 전략적 구상 - 북극항로 개척의 현실적 과제 - 미래 물류 혁명, 북극항로의 잠재력
	청년	- 제주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 청년 지원 종합전략 및 조직 신설 - 청년 역량 강화 및 문화 향유 지원
	감귤	- AI·3D 기술로 감귤 생산량 예측 - 덜 익은 감귤 유통 차단, 품질검사제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 지원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감귤	- 감귤데이 10주년 대규모 홍보 - AI 기반 감귤 생산량 예측 도입 - 극조생감귤 품질검사제 시행
	홍보	-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 개최 - 제주 드림타워 '잡 콘서트' 개최 - K-Heritage 래핑 항공기 홍보
	크루즈	- 상반기 크루즈 관광객 증가 - 항구별 관광객 특성 및 문의 분석 - 크루즈 관광 인프라 개선 과제
	관광객	- MICE 산업 활성화 및 국제회의 유치 - 관광불편신고 감소 및 질적 변화 -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농가	- 마늘·양파 농업경영정보조사 실시 - 추석 앞둔 사과 가격 급등 - 기후변화 대응 꿀벌 질병관리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차량	- 잇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 불법 차량 집중 단속 및 처분 - 다양한 차량 관련 사건·사고
	예방	- 소방당국, 재난 예방 활동 강화 - 다중피해사기 예방 캠페인 -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해상	- 잇따른 해상 표류·좌초 사고 - 해녀 및 선원 인명사고 발생 - 해양 환경 보전과 위협
	불법	- 외국인 불법 관광영업 적발 - 군사시설 불법 드론 촬영 - 생활 속 불법 행위 단속
	구조	- 시민·비번 경찰의 활약 - 해상 조난자 신속 구조 - 생활 속 안전사고 구조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8월 21일~8월 26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697건임
 - 정치·행정 분야 286건, 경제·관광 156건, 지역·사회 25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기초자치단체, 국정과제, 북극항로, 청년, 감률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둘러싼 갈등 · 오영훈 제주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두고 이견이 지속됨. 오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3개 기초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를 주장하나,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 쪼개기'에 반대하며 '2개 기초시(제주시, 서귀포시)' 안을 고수하여 당 정협의회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함 · 행정구역 단일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동력이 약화되고, 2026년 7월 출범 목표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	------------	--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	나옴. 정치권의 이견 대립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도민 사회의 피로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오영훈 지사의 정치적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임 - 국정과제 채택과 정부의 역할 ·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의 큰 동력을 확보함. 이는 단순한 지역 공약을 넘어 국가적 의제로 격상된 것으로, 제도 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동 책임이 부여되어 향후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해짐 ·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에 앞서 행정구역에 대한 '단일화 안' 제시를 요구하며 제주 정치권의 합의를 선결 과제로 제시함.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역 내 이견 해소를 우선 과제로 보고 있어, 향후 추진 일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 결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 출범 대비 실무 준비 착수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하여 자치법규 일괄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출범 즉시 시행이 필요한 623건의 법규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해 행정시에 전달했으며, 나머지 표준안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실무적 준비를 완료할 계획임 · 양 행정시는 제주도가 제공한 표준안을 토대로 실제 적용될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안을 마련 중임. 제주도는 법제 전문가를 채용해 법제 검토 및 입법 컨설팅을 지원하며, 법규 간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범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국정과제	- 제주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제2 공항 건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제주의 핵심 현안이 대거 국정과제로 반영됨. 이를 통해 지역 공약 수준을 넘어 국가적 의제로 격상되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됨 · '글로벌 위케이션 허브 육성',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7대 공약이 1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되어 국정과제에 포함됨.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계획임 - 국비 확보 위한 당정협의 · 오영훈 지사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함. 제주도는 전국장애인체전 시설비,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10대 우선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제주도가 제시한 우선 국비 사업들이 대부분 신규 사업이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과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

정치·행정	국정과제	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사업 재조정을 주문함 - 국정과제 연계 후속 조치 본격화 · 제주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현안을 구체화하고 미반영 과제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섬.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제주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임 ·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방안에 대응하여,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담은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임.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등 5개 핵심 법률의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만의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특별법 개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임
	북극항로	- 북극항로 시대, 제주의 전략적 구상 · '테크플러스 제주' 포럼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제주가 동북아 해상 네트워크의 교차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됨. 특히 중국의 북극 진출 전진기지로서, 제주-중국-부산을 연결하는 '다극해상루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구상이 제안됨 · 제주가 가진 평화와 환경의 가치를 적극 활용해 국제 사회의 분쟁을 중재하고, 친환경 스마트 물류 허브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이를 위해 제주신항 개발 계획에 화물선석을 확보하고, 항공과 해상을 연계하는 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인프라 준비가 시급함 - 북극항로 개척의 현실적 과제 · 북극항로는 러시아가 연안의 53%를 차지하고 북극해항로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통과 시 국제법적 제약과 러시아의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러시아는 자국 자원 수출 통로로 항로를 활용하고 있어, 단순한 물류 대체 경로를 넘어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임 · 한국은 북극항로 활용 논의에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현재 제주는 관련 화물이나 항만 역할이 전무한 실정임. 북극 크루즈 산업 또한 거리상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보다는 제주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미래 물류 혁명, 북극항로의 잠재력 · 북극항로는 기존 남방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운항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 해양 실크로드'로 평가됨. 해적 등의 위협 요소가 없어 안전한 운송이 가능하며, 향후 전 세계 물류 운송에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도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북극항로 TF팀'을 가동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에 돌입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에 대비하고 있음. 제주의 역할 모색 또한 이러한 정부 기조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됨

정치·행정	청년	- 제주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 제주시의 청년(19~39세) 인구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약 1만 5천 명 감소하며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룸.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 현상이 맞물리면서, 제주시 인구 50만 명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등 제한적인 경제적 기회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특히 원도심 및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인구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청년 지원 종합전략 및 조직 신설 · 제주시는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 2407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함.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원도심 활력 제고', '청년 유입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60개 사업을 추진하며, '인구청년통계팀'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함 ·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로컬브랜드 창출' 등 정부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청년드림, 제주앓올레' 한 달살이 거주비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행함.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청년 역량 강화 및 문화 향유 지원 ·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코딩 경험이 없는 청년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AI 데이터 분석' 무료 교육 과정을 운영함. 5일간의 집중 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도록 지원하며, 수료 시 인증서를 발급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돕고 있음 · 200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자율방재단'을 발족하여, 청년들이 경로당 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감률	- AI·3D 기술로 감귤 생산량 예측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기존의 수작업 관측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와 3D 입체모델링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감귤 생산량 예측 체계를 본격 도입함. 스마트폰으로 감귤나무를 촬영하면 3D 모델이 생성되고, AI가 열매 수와 크기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예측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 새로운 예측 모델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와 기상 정보, 위성 식생지수 등을 기계학습(머신러닝) 방식으로 종합 분석함.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적 오류를 줄이고 폭염기 작업 부담을 완화하며,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져 제주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덜 익은 감귤 유통 차단, 품질검사제 · 제주도가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의 조기 출하를 막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함. 10월 1일 이전에 감귤을 수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감귤	- 감귤데이 10주년 대규모 홍보 · 농협, 제주도, 감귤연합회가 공동으로 '감귤데이'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소비 촉진 홍보를 전개함. 경기도 고양 스타필드를 시작으로 서울 청계천, 양재 aT 센터 등 수도권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 '굴루랄라~ 즐거운 제주감귤'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식회,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적극 알림 · 이번 행사는 '국민 비타민' 제주 감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감귤데이는 매년 12월 1일로,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이하의 고품질 감귤을 알리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맛있는 감귤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지지하는 데 기여함 - AI 기반 감귤 생산량 예측 도입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기존의 인력 중심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와 3D 모델링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감귤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함. 스마트폰으로 감귤나무를 촬영해 이미지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약 40분 만에 3D 모델이 생성되고, AI 분석을 통해 열매 수와 크기 등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방식임. 이를 통해 인적 오류 및 폭염기 작업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짐 · 이 예측 모델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감귤 관측 데이터와 기상 정보, 위성 기반 식생지수 등을 결합한 머신러닝 방식으로 구현됨. 컴퓨터가 과거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8종의 예측 모델을 병행 적용하여 정확도를 높임. 디지털 농업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 예측 정확도를 높여 농업 정책 수립과 수급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극조생감귤 품질검사제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가 덜 익은 감귤의 조기 출하를 막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이는 일부 덜 익은 감귤 유통으로 전체 제주 감귤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확 전 당도 기준 확인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검사를 실시함 · 품질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나 유통인은 수확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과원 소재지 관할 행정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상품 기준에 미달되는 감귤을 출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선별 후 출하해야 함. 제주도는 이를 통해 고품질 감귤만 시장에 유통시켜 소비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
	홍보	-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 개최 · 서귀포시가 크루즈 기항지인 강정항 인근에서 크루즈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2025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를 개최함. 주요 크루즈 입항일에 맞춰 8월

경제·관광	홍보	30일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 K-pop 커버 댄스, 해녀 공연, 플리마켓, 한류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서귀포의 매력을 알릴 예정임. 이를 통해 강정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올해 강정항에는 전년 대비 53항차 증가한 191척의 크루즈가 입항해 약 52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1박 이상 체류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 관광객에게는 '금토금토 새연쇼' 등 원도심 행사를 연계 홍보하여 체류 기간 동안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계획임 - 제주 드림타워 '잡 콘서트' 개최 ·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구직자들을 위해 직무 체험부터 채용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잡(JOB) 콘서트'를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함. 올해는 경력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 범위를 넓혀 도민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 객실, 식음료, 조리, 카지노 등 드림타워 전 부문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진행할 예정임 · 특히 현직 전문가와 소통하는 '커리어톡'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인에게 맞는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이는 단순 채용을 넘어 도민의 역량 강화와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부담 없이 참여하여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함 - K-Heritage 래핑 항공기 홍보 · 제주항공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K-Heritage 래핑 항공기'를 공개하고 해외 노선에 투입함. 항공기 동체에는 조선시대 궁중장식화인 '십장생도'가 입혀졌으며, 이는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인천~오사가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에 투입되어 세계 하늘길에서 대한민국 국가유산을 홍보함 · 이번 프로젝트는 'K-헤리티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됨. 래핑 항공기 외에도 십장생도가 디자인된 국제선 탑승권을 선보였으며, 래핑 항공기 이용 외국인 탑승객에게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제작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함. 이를 통해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림
	크루즈	- 상반기 크루즈 관광객 증가 · 2025년 상반기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163회로, 전년 동기(128회) 대비 27% 증가하며 크루즈 관광이 호황을 맞고 있음. 같은 기간 외국인 크루즈 승객은 37만 1,605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전년(34만 6,149명)보다 7% 늘어나는 등 꾸준한 확대 추세를 보임 · 항구별로는 제주항에 60회(9만 7,933명), 강정항에 103회(27만 3,672명)가 기항함. 특히 제주항은 전년 대비 승객 수가 24%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음. 이러한 양적 성장은 제주가 크루즈 관광 시장에서 중요한 기항지임을 보여주나, 동시에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함

경제·관광	크루즈	- 항구별 관광객 특성 및 문의 분석 · 제주항과 강정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은 뚜렷한 여행 수요 차이를 보임. 제주항은 영어권 문의가 9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동문시장'(1020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음. 반면 강정항은 중국어권 문의가 46%로 가장 많았고, '버스'(513건)와 '택시'(474건) 등 교통수단 관련 문의가 집중됨 · 언어권별로도 관심사가 달랐는데, 영어권은 해녀·올레길 등 체험형 관광에, 일본어권은 동선과 결제 수단에, 중국어권은 교통·통신·쇼핑 등 다방면에 관심을 나타냄. 이러한 데이터는 항구별 맞춤형 관광 안내 및 인프라 개선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함 - 크루즈 관광 인프라 개선 과제 · 두 항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교통편, ATM 부재, 환전 불편, 와이파이 연결 문제 등 기초 인프라 관련 불편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제주항 무료 셔틀버스 운행, 강정항 680번 노선버스 신설 등 일부 교통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ATM 등 금융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항과 강정항에 총 38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설치 기반 공사를 시작함.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입국 심사 시간이 단축되어 관광객의 대기 불편이 줄고 제주 체류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안내 서비스 고도화가 관광객 만족도 제고의 핵심 과제로 지적됨
	관광객	- MICE 산업 활성화 및 국제회의 유치 · 제주도가 2027년 '아시아태평양화학학생태학회(APACE)' 유치에 성공함. 이 학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로, 전 세계 화학생태학 분야 석학 약 200여 명이 제주에 모일 예정임.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치한 것으로, 국내 도시 중 유일한 사례이며 제주의 우수한 MICE 인프라와 국제적 위상을 입증함 · 또한,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 전국 우수 품질분임조 316개 팀과 기업 임직원 등 4000여 명이 참가해 혁신 성과를 공유함. 이러한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는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불편신고 감소 및 질적 변화 · 2025년 상반기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87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33% 감소하며 관광객 만족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특히 해수욕장 관련 민원이 53건에서 15건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파라솔 대여료 등을 안정화하며 '바가지요금' 논란을 해소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됨 · 민원의 내용도 과거의 불친절, 가격 불만 등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온라인 예약 시 소비자 오인 유발 문구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형태로 질적 변화를 보임. 이는 관광객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제주도는 현장 신속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신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경제·관광	관광객	-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고유의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25 제주 산림치유 활동가'를 모집함. 참가 대상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취득 과정에 있는 제주도민으로, 제주의 우수한 산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게 됨 · 선발된 활동가에게는 서귀포 치유의숲 인턴십 기회와 함께 콘텐츠 개발비, 홍보비, 인턴십 지원금 등이 제공되며, 최종보고회를 통해 우수 활동가에게는 상금도 수여됨. 이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제주만의 특화된 웰니스 관광 상품을 발굴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임
	농가	- 마늘·양파 농업경영정보조사 실시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마늘·양파 재배 농가의 경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400필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정보조사를 실시함. 이 조사는 필지별 비료·농약 투입량, 노동 시간, 생산량, 판매단가 등 영농 과정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임. 이를 통해 생산비 절감, 노동 효율화, 소득 안정 방안 등을 도출하여 농가 경영 개선과 정책 설계에 활용할 방침임 · 조사에 참여한 농가는 총수입, 경영비, 소득 등이 시각적으로 정리된 '내 밭 농업경영 보고서'를 제공받음. 보고서는 동일 지역·경작 규모의 평균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포함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강점과 보완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경영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줌 - 추석 앞둔 사과 가격 급등 ·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사과 소매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음. 현재 후지 사과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상승했으며, 평년 대비로도 39% 이상 오른 수준임. 이러한 가격 상승은 지난 5월 저온 피해,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경북 주산지 산불 피해 등이 겹쳐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임 · 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사과 출하량이 전년보다 약 5.7%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저장사과 물량 소진으로 단기적인 가격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분을 활용해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분간 농가는 출하량 감소의 어려움을, 소비자는 높은 가격 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 대응 꿀벌 질병관리 · 제주도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꿀벌 질병관리 세미나'를 개최함. 기후변화로 꿀벌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질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방역 및 사양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도내 양봉농가와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함 · 세미나에서는 꿀벌 질병의 원인과 예방 전략, 올바른 약품 사용법 등 이론 교육과 함께, 꿀벌응애 방제 기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전수함.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질병 관리, 농가의 자율방역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됨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차량, 예방, 해상, 불법, 구조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차량	- 잇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 제주에서 하루 동안 오토바이와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3건이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함. 서귀포시 강정동에서는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운전자가 사망하고 60대 보행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제주시 외도동과 애월읍에서도 각각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됨 · 지난해 제주지역 교통사망사고 통계 분석 결과, 맑은 날씨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5%를 차지해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출근 시간대인 오전 4~8시에, 서귀포시는 관광객 이동이 많은 오후 4~6시에 사고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임. 특히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고령층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불법 차량 집중 단속 및 처벌 · 제주시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을 강화해 올해 7월 말까지 총 1,433대를 적발함. 이 중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이 114대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단속 대상은 미승인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돌출, 차체 임의 변경 등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 중임
-------	----	---

지역·사회	차량	·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차량 212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사전 통지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이행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제주시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다양한 차량 관련 사건·사고 · 서귀포시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 경사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운전자는 기어를 'P(주차)' 모드로 두었다고 진술했으나 차량이 미끄러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해경에 의해 인양 조치됨 · 제주시 도남동과 이도2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하여 1,347세대가 불편을 겪고 승강기 갇힘 사고가 접수됨. 또한, 출근 시간대 제주시 연북로에서 차량 엔진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
	예방	- 소방당국, 재난 예방 활동 강화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야간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함. 이번 조사는 피난·방화시설 폐쇄 여부,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폭염 속 화재 위험이 높은 물류센터와 주유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함 ·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9월을 앞두고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 발령함. 최근 5년간 침수 사고 505건 중 38.2%가 9월에 집중되었으며, 주택 침수 피해가 가장 많았음. 소방당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하공간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다중피해사기 예방 캠페인 · 제주경찰청이 최근 급증하는 '노쇼(No-Show)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양계기업과 협력하여 홍보 캠페인을 추진함.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예약을 한 뒤 특정 물품의 대리 구매 및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됨 · 캠페인은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구분한 맞춤형 전략으로 진행됨. 자영업자에게는 계란 배송 시 사기 수법과 예방법이 담긴 안내 카드를 직접 전달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계란판 라벨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를 삽입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 제주도가 만·관·경 합동으로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안전지표 개선 효과를 거둠. 올해 상반기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했으며, 자율방범대 등 주민 참여는 20% 증가함.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즉시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에 주력함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함.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역·사회	예방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 또한, 도산이나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을 위해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와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안내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해상	- 잇따른 해상 표류·좌초 사고 ·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탑승한 모터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등 제주 해상에서 선박 표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출항 전 엔진 및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음. 사고 선박은 암초에 일부가 걸렸으나 큰 손상 없이 안전하게 한림항으로 입항 조치됨. 해당 해역은 수심이 낮아 좌초 사고가 빈번하므로 항해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해녀 및 선원 인명사고 발생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해상에서 물질하던 80대 해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 해녀에게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고령 해녀의 조업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대형 어선에서 60대 선원이 그물 인양 작업 중 그물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해경은 헬기를 급파해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 해양 환경 보전과 위협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김녕리 해안에서 국제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이 잇따라 발견됨. 짝짓기 시도 및 해파리 사냥 모습 등이 포착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산란과 연관된 행동으로 추정하며 제주 연안의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함 · 지난 2월 선박 좌초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안에 선박 잔해물과 폐기물이 반년 넘게 방치되어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녀들은 물질을 중단했고, 해당 지역을 자주 찾는 남방큰돌고래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임. 제주시는 뒤늦게 수거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불법	- 외국인 불법 관광영업 적발 ·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한 40대 대만인 여성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없이 지인 23명을 대상으로 불법 가이드 활동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됨. 해당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 자치경찰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며, 불법 관광영업이 과도한 쇼핑 유도 등으로 제주 관광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단속 강화를 예고함. 올해 7월 말까지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등 총 45건의 불법 관광영업 행위를 단속함

지역·사회	불법	- 군사시설 불법 드론 촬영 · 30대 중국인 2명이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하다가 부대 경계 근무자에게 발각됨. 해군은 즉시 방호 조치를 시행하고 경찰과 공조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임 ·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드론 촬영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고의성 여부와 추가 촬영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음 - 생활 속 불법 행위 단속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과 유통업체 30곳이 무더기로 적발됨.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으며, 위반 품목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음. 농관원은 이 중 17곳을 형사입건하고 13곳에 과태료를 부과함 · 제주시 삼양동의 한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락스, 쥐약 등 독성 물질을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함. 급식소 관리 주민의 신고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학대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구조	- 시민·비변 경찰의 활약 · 제주시 신흥해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익수사고 현장에서 시민과 비변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활약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함. 스노클링 중 위험에 처한 40대 남성은 인근 시민 2명과 휴무를 맞아 물놀이 중이던 제주해경 소속 김원 순경이 함께 구조함 · 비슷한 시각,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진 60대 여성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이자 레저업체 직원인 시민이 제트스키를 이용해 신속하게 구조함. 제주해경은 구조 활동에서 시민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구조된 두 사람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됨 - 해상 조난자 신속 구조 ·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에 탑승했던 어린이 4명을 포함한 9명이 해경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됨.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으며, 출항 전 장비 점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 우도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80대 해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함께 조업하던 동료 해녀들이 신속히 발견해 구조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숨졌으며, 고령 해녀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됨 - 생활 속 안전사고 구조 · 제주시 도남동과 이도2동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건물 승강기에 주민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119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안전하게 구조함. 이 정전은 1,300여 세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약 1시간 만에 복구됨

지역·사회	구조	· 주말 동안 발생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조 활동이 이어짐. 서귀포시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보행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제주시에서는 자전거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이 119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짐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